

발명 365

지렛대

막

대를 어떤 점에서 받쳐서 그 받침점 주위를 회전할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지렛대의 원리이다. 대저울을 비롯해서 이 원리를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힘을 작용케 하는 기구는 많다. 도르래나 회전축 등도 그 특수한 응용의 예라 할 수 있다. 이 밖에도 가위, 집게, 플라이어, 펌프 핸들, 병따개, 호두까기 등의 많은 생활용품들이 모두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고 있다. 이 지렛대는 언제 발명되었을까?

바퀴와 같이 지렛대도 수많은 기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기본적인 도구의 하나이다. 지렛대의 원리는 선사 시대에 이미 알려져 있었으나 그것을 완벽하게 기술한 사람은 그리스의 수학가 아르키메데스이다. 지렛대는 일반적으로 물건을 들어올리는 딱딱하고 긴 막대를 가리키며 이 막대를 한 받침점 위에 올려 작동한다.

